



교촌프랜차이즈
파일럿 브랜드
'소식' 선배
L1

metro®

Life

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 발표
L4



‘미스김’부터 ‘벌거벗은 공주님’까지 30년간 한국사회 구조적 차별 조명



새벽을 여는 사람들

권영임 작가

작가 권영임은 1993년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부터 2025년 ‘벌거벗은 공주님’을 공개하기까지 30여 년 시간을 관통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조명하고 있다.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는 사무직 여원이 직장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고발 에세이다. 고졸 출신의 대기업 골드 미스가 주인공이며 개인 가치관 문제,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폭넓게 다룬다.

‘벌거벗은 공주님’은 9편의 단편이 담긴 소설 집이다. 표제작 벌거벗은 공주님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이 겪는 압박, 불안 등 인간 삶의 굴레를 드러내며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균형을 짚어낸다. 작가의 시선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문학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영임 작가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 차별을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러나 충분치 않다.

권영임 작가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은 사회적 약자였으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또 30년이 흐른 현재, 사회적 약자의 삶은 크게 달라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차별이라는 말조차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시대에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약자의 목소리는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감수성도 확실히 성장했다. 제도 또한 이전보다 단단한 형태로 존재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약자의 삶은 비슷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차별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함의 대상이 되는 현실 또한 남아 있다.

권 작가, 사회적 불균형 주목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들 대변 “기록과 기억을 통해 위로 전해야”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깊이에 있다. 즉 불평등을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대 사회가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있다면 불평등을 개인 능력 부족으로 돌려버리는 오래된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폭력이며 이 강 너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뀐 척하는 사회’에 머무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폭력 속 개인 내면을 읽는 방식

권영임 작가의 작품에는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그릇된 가치관, 거짓 명예와 부도덕함, 성희롱과 성폭력, 직장 내 비리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모두 각박한 현실에서 개인의 삶과 내면이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폭력은 거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방식은 지극히 은밀하다. 그래서 인물의 말보다 침묵의 공기를 먼저 읽으려 한다. 숨을 고르는 순간, 말하지 않은 문장, 눈길이 머무는 자리, 그 미세한 흔적들이야말로 한 인간의 진실을 드러낸다.

서사를 만들 때도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켜내고 자신을 회복하려 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가 개인을 부수고 간 틈 사이에서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작은 떨림의 시작을 오래 바라보며 기록해 왔다. 나의 글은 어떤 피해의 나열이 아니라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에 대한 기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2019년 도서출판 바람꽃 설립 ‘미스김 시집이나 가지’ 개정판 준비 “글은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

◆ 문학이 건네는 위로: 기록과 기억

권 작가는 문학의 가치를 하나는 기록하는 일,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일, 두 가지로 정의한다.

그는 “독자가 ‘당신의 문장 덕분에 버텼다’고 말해줄 때, 현대 사회에서도 문학은 여전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순간엔 작가에게 가장 정치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절망 속에 아주 작은 틈을 내어 그 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학을 통해 불평등, 차별, 소외된 목소리를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가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은 위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문학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인식만으로도 인간이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창작에서 오는 성취감

권 작가는 ‘한국평화문학’에서 침묵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15인 공동소설집 등도 선보였다.

그는 “누군가가 제 문장에서 자기 삶의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해줄 때, 글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하나의 증언이 되었다고 느낀다. 책의 판매량이나 화제성보다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나를 책상 앞으로 이끄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권 작가는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 그 후 30년! 개정판’도 준비하고 있다. 30년 전 ‘미스 김’의 외침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공명으로 다가오듯이 그의

끈질긴 시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멈추지 않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속 보이지 않는 노동, 특히 가족돌봄 노동과 감정 노동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서사, 즉 나이 들의 존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쓰고자 한다.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교차적 불평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젠더 갈등, 계급화, 세대 차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 이주 현실 등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억압의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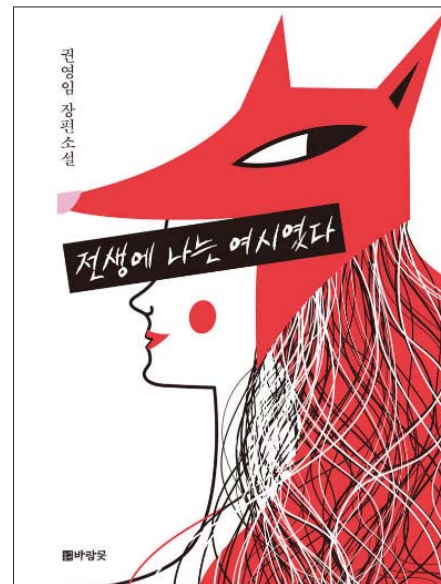
가장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것은 약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를 약자로 만드는 세계의 민낯, 그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인간들의 끈질긴 존엄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영임 작가는 15년 넘게 편집자, 편집장으로 일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도서출판 바람꽃’을 설립했다. 이후 시, 소설, 에세이 등 문학 관련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소설집 ‘벌거벗은 공주님’.



장편소설 ‘전생에 나는 여시었다’ /바람꽃



▲ ‘4관왕·MVP’ 폰세, 오늘 홀로 미국행…MLB 계약 임박한 듯
▲ ‘꿈의 무대’ 올림픽 앞둔 임해나-권에 “밀라노 행 비행기 타야 실감날 것 같아” /사진 뉴스스

▲ ‘로드 투 북중미’ 홍명보호, 월드컵 좌우할 베이스캠프 선정 ‘고심’
▲ 메시의 인터마이애미, 뉴욕시티 5-1 완파…MLS컵 결승 진출

▲ ‘2024년 MLB 세이브 1위’ 헬슬리, 볼티모어와 2년 412억원 계약
▲ 여자 핸드볼, 앙골라에 23-34 패배…세계선수권 2연패